“인류의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에 전념해 온 의과학자들”

제14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수상자인 김진홍 서울대 교수, 로날드 에반스 교수를 대신해 참석한 조혜련 박사, 구본권 서울대 의대 교수, 유창훈 울산대 의대 교수(왼쪽부터)와 함께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지난 3월 18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제14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로날드 에반스(72) 미국 솔크연구소 교수에게 25만 달러, 임상의학부문 구본권(54)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에게 3억 원,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김진홍(39)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유창훈(39) 울산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에게 각각 5천만 원 등 4명에게 약 7억 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아산의학상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낸 국내외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2008년에 제정됐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로날드 에반스 교수는 세포 내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결합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핵수용체’가 대사질환 및 암의 발생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와 많은 한국인 의과학자를 양성하여 한국 의과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로날드 에반스 교수는 코로나19로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해 제자인 조혜련 박사가 대신 수상했다.

임상의학부문 수상자인 구본권 교수는 영상검사와 생리학 검사를 통합한 심장 관상동맥질환 연구를 주도하며 우리나라의 성인 심장질환 진단과 치료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업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만 40세 이하의 의과학자에게 주어지는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김진홍 교수는 퇴행성 관절질환의 기전을 규명하고 연골 재생치료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유창훈 교수는 간, 담도, 췌장암, 신경내분비종양의 신약 연구 및 임상적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버님께서는 평소 ‘의학이라는 학문과 의술은 참으로 무한하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자체도 또한 한이 없다. 숭고한 정신을 한없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계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수상자들께서 연구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인류의 질병 치료에 기여한다는 열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상자들께서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하시는 데 오늘의 아산의학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아산재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에는 수상자만 초청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